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205>

JCCT 2022-7-27

##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Perceived Stress toward Resilienc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graduate Students

윤숙자\*

Suk Ja Yoon\*

**요약**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 3.34±0.45점이었으며,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 $r=.521$ ,  $p<.001$ ), 대인관계능력( $r=.678$ ,  $p<.0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지각된 스트레스( $r=-.234$ ,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beta=.280$ ,  $p<.001$ ), 대인관계능력( $\beta=.394$ ,  $p<.001$ ), 지각된 스트레스( $\beta=-.191$ ,  $p<.001$ )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3.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that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ffect resilienc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graduate students. Population of this study were 330 students in B city. Data were analyzed by a real number, percentage, Mean, SD,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logistic regression analyzation using SPSS 22.0. Resilience mean of population was 3.34±0.45. Resilience of popul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r=.521$ ,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r=.678$ ,  $p<.001$ )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 $r=-.234$ ,  $p<.001$ ). The factors affected to resilience of population were self-efficacy( $\beta=.280$ ,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eta=.394$ ,  $p<.001$ ), prceived stress( $\beta=-.191$ ,  $p<.001$ ),  $R^2$  was 53.3%. This results indicated the factors that affect resilienc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graduate students.

**Key words** :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erceived Stress, Resilience

\*정회원,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Received: May 31, 2022 / Revised: June 26, 2022

Accepted: July 2, 2022

\*Corresponding Author: yoonsj@gu.ac.kr

Dept. of Social Welfare, Gyeongju University, Korea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 분야의 활성화로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휴먼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정기술보다는 추상적 사고의 이론을 공부하는 인문학과 인간의 개인적, 조직적 행동을 탐색하는 사회과학 학문들이 노동시장에서 ‘덜 유용한’ 지식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1-2]. 또한 졸업 이후 취업현장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자연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전공-업무 일치도가 낮고 업무성과도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3].

대학진학 후 취업이 우선시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의 불안한 직업이행 실태는 대학의 기업식 구조조정의 확산에 따라 가장 먼저 정원감축이나 학과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의 문·이과반 편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4-5]. 이는 ‘인문학의 위기’와 ‘사회과학의 자멸’이 초래될 수 있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적응력과 학문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의 상태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6]. 또한 회복탄력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발달과정에서 습득되는 능력이다[7].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났고[8],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확인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여 학업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과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자신의 직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목표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10]. 대학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업수행을 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11].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며 적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2].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13]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시기의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대학생에게 중요한 자질이다[14]. 대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겪게 되면 대학생활 전반에 불만족과 의욕상실,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15].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6], 가족이나 친족,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관계가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17].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18].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환경과 유연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므로[19] 회복탄력성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조절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전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 중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진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33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ong[20]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Song[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lein, Guermey [21]가 개발한 도구를 Moon[22]이 번안하고 Lee[23]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만족감 5문항, 감정이해 7문항, 의사소통 6문항, 개방성 5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3)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등[24]이 개발하고 Cohen, Williamson[25]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축형으로 만든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Lee[26]가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27]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성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일반적 특성으로 '남학생' 106명(32.1%), '여학생' 224명(67.9%)으로 총 330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 149명(45.2%), 2학년 181명(54.8%)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20-22세' 189명(57.3%), '20세 미만' 84명(25.5%), '23세 이상' 57명(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사회복지과’ 89명(27.0%), ‘호텔경영학과’ 88명(26.7%), ‘경영학과’ 87명(26.3%), ‘유아교육과’ 66명(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택’ 240명(72.7%), ‘자취’ 56명(17.0%), ‘기숙사’ 34명(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06	32.1
	Female	224	67.9
Grade	1 <sup>st</sup>	149	45.2
	2 <sup>nd</sup>	181	54.8
Age (year)	<20	84	25.5
	20-22	189	57.2
	≥23	57	17.3
Department of major	Early childhood education	66	20.0
	Social welfare	89	27.0
	Business administration	87	26.3
	Hotel management	88	26.7
Residential type	Home	240	72.7
	Board oneself	56	17.0
	A boarding house	34	10.3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 3.22±0.49점, 대인관계능력 평균 3.41±0.46점,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 2.76±0.51점, 회복탄력성 평균 3.34±0.4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정도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erceived stress, resilience(N=330)

Variable	M±SD	Min	Max
Self-efficacy	3.22±0.49	1.00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41±0.46	2.09	5.00
Perceived stress	2.76±0.51	1.00	5.00
Resilience	3.34±0.45	1.87	5.00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M±SD	t/F(p)scheff's
Sex	Male	3.32±0.40	-.551 (.582)
	Female	3.35±0.47	
Grade	1 <sup>st</sup>	3.32±0.47	-.926 (.355)
	2 <sup>nd</sup>	3.36±0.43	
Age (year)	<20	3.38±0.44	.454 (.635)
	20-22	3.34±0.45	
	≥23	3.31±0.47	
Department of maj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34±0.40	2.047 (.107)
	Social welfare	3.29±0.45	
	Business administration	3.29±0.49	
	Hotel management	3.44±0.44	
Residential type	Home	3.32±0.44	1.159 (.315)
	Board oneself	3.42±0.47	
	A boarding house	3.37±0.44	

##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 $r=.521, p<.001$ ), 대인관계능력( $r=.678, p<.001$ )과는 정적상관관계, 지각된 스트레스( $r=-.234, p<.001$ )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 $r=.417, p<.0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지각된 스트레스( $r=-.131, p=.131$ )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스트레스( $r=-.240,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791-.941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62-1.263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856으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

표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erceived stress, resilience(N=330)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erceived stress	Resilience
	r(p)			
Self-efficacy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417(<.001)	1		
Perceived stress	-.240(<.001)	-.131(.018)	1	
Resilience	.521(<.001)	.678(<.001)	-.234(<.001)	1

표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affect to resilience(N=330)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931	.189		4.914	<.001
Self-efficacy	.244	.039	.266	6.290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546	.041	.554	13.354	<.001
Perceived stress	-.086	.034	-.098	-2.527	.012
Adjusted R <sup>2</sup> =.533 F=126.087 p<.001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26.087, p<.001), 수정된 결정계수(R<sup>2</sup>)은 .533으로 회복탄력성을 53.3%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beta$ =.266, p<.001), 대인관계능력( $\beta$ =.554, p<.001), 지각된 스트레스( $\beta$ =-.098, p=.012)로 나타났다(Table 5).

#### IV. 고 찰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 3.34±0.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전공대학생 대상으로 평균 3.59점으로 나타난 결과[17], 대학생을 대상으로 3.69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8] 보다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문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대학교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 2-3년제로 4년제와 달리 짧은 기간 내에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써 사회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학과 적응이나 전공에 따른 진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29]. 또한 전공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없이 대학생생활을 시작하여 미래에 대한 모호성, 좌절,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낮은 자기확신 등으로 대학생 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30] 무엇보다 회복탄력성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전공별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와 전문대와 4년제의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에 연령, 학년, 건강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전공만족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7]와 회복탄력성에 성별, 전공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8]와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특성들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확인된 결과[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다. 회복탄력성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강점이며 동시에 문제상황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32] 다양한 변화 가운데 놓인 대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첨단시대에도 인간중심의 학문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후속연구와 그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와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지각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일부 지역 국한된 학교의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의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J.Y. Jung, Y.H. Joo, and H.R. Jeo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among students in the disciplines of humanity and social science", *The Korea Education Review*, Vol. 24, No. 2, pp. 141-165, 2018. DOI: <http://doi.org/10.29318/KER.24.2.6>
- [2] H.S. Shin, and H.K. Jeong, "Influence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satisfaction on career indecis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5, pp. 1087-1102, 2019. DOI: <https://doi.org/10.22143/HSS21.10.5.78>
- [3] J.Y. Lee, and B.R. Youn,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by college majors: comparing graduate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2, No. 4, pp. 199-226, 2012. DOI: <http://doi.org/10.32465/ksocio.2012.22.4.008>
- [4] Segye Daily news (2010.10.21.). "Ulsan University, Suffering from a quota reduction."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01021004201&subctg1=01&subctg2, 2010.10.21>.
- [5] Chosun Daily news(2011.3.28.). "Revive of the science cours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28/2011032800205.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2011.3.2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28/2011032800205.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2011.3.28)
- [6] W.Y. Shin, M.G. Kim, and J.H. Kim, "Development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pp. 105-131, 2009.

- [7] E.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2, pp. 45–67, 2006.
- [8] T.M. Stephens,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Vol. 48, No. 2, pp. 125–133, 2013. DOI: <https://doi.org/10.1111/nuf.12015>
- [9] B.R. Cho, and J.M. Lee, “Effect of undergraduat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4, pp. 1–11,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22.17.4.001>
- [10]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11] S.H. Kwon, “College students’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7, No. 2, pp. 49–71, 2007.
- [12] Y.J. Jee, and K.N. Kim,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12, No. 9, pp. 19–27, 2016.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6.12.09>
- [13] Y.S. Lee, S.H. Park, and J.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14] M.J. Kim, “A comparison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and relation fact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major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310–2319,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310>
- [15] R.C. Kessler, R.H. Price, and C.B. Wortman,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6, pp. 531–572, 1985.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36.020185.002531>
- [16] W.S. Choi, and Y.S. Sung,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9, No. 1, pp. 41–61, 2022.
- [17] D.T. Son, and Y.H. Moo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ilience of social welfare major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6, pp. 48–69, 2000.
- [18] K.G. Jeon, K.H. Kim, and J.S. Lee, “Development of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19] H.S. Hong and H.Y. Kim,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2, pp. 221–234, 2016.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6.39>
- [20] Y.A. So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al self efficacy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4.
- [21] A. Schlein, and B.G. Guernsey,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oss, 1977.
- [22] S.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pp. 195–204, 1980.
- [23] W.G. Lee, “*The effects of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diated by self-differentiation and we-consciousnes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2006.
- [24] S. Cohen, T. Kamark, and L.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No. 4, pp. 385–396, 1983. DOI: <https://doi.org/10.2307/2136404>
- [25] S. Cohen, and G. Wiliamson,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pp.31–67). Newbury Park, CA: SAGE, 1998.
- [26] J.E. Lee,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uwon, 2014.
- [27] H.J. Cho, “*A study of the effects of resilience factor on flight attendants’ job performance and oranzizational effectiveness-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Aju University, Suwon, 2016.
- [28] J.N. Jeong, “The impacts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2, pp. 385-394,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2.385>
- [29]B.S.Kim, and H.J. Park, "Analysis of the degree of need for vocational information based on vocational value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3, pp. 149-171, 2007. DOI: <https://doi.org/10.35273/jec.2017.7.2.006>
- [30]J.U. Kim, and M.H.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 - differentiation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506>
- [31]I.H. Chun, and J.Y.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6 No. 1, pp. 49-60, 2016.
- [32]J.G. Dyer, and T.M. McGuinness,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10, No. 5, pp. 276-282, 1996. DOI: [https://doi.org/10.1016/S0883-9417\(96\)80036-7](https://doi.org/10.1016/S0883-9417(96)80036-7)